

『東醫壽世保元』方名論

金振榮*

『東醫壽世保元』의 新定四象人67方(아래에 『東醫壽世保元』處方이라고 略稱함)은 李濟馬先生이 古人の 處方을 다듬고 또 새로운 處方을 創立하여 이루어진 四象醫學의 處方으로서 四象醫學處方學의 始祖이다. 내가 『東醫壽世保元』을 탐독하고 연찬하면서 그중의 新定四象人67方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아래에 소개하려한다.

1. 方名分類論

方名은 약처방의 내재적인 특성과 작용을 반영한다. 『東醫壽世保元』處方名을 그들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별로 나누고 細分하여 네가지 유별로 나눈다.

큰 두가지 유별 가운데의 하나는 因襲名이고 다른 하나는 獨創名이다. 因襲名과 獨創名가운데는 모두 주요약물의 이름으로 처방의 이름을 지은 藥名處方名과 처방의 性能에 따라 이름을 지은 性能處方名이 있다. 그리하여 處方名은 모두 네가지 유별로 細分된다.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處方24方, 少陽人 處方17方, 太陰人 處方24方, 太陽人 處方2方하여 共히 67方을 四類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2. 因襲類

(1) 因襲藥名處方名(15方)

川芎桂枝湯, 黃耆桂枝湯, 芎歸香蘇散, 黃耆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 人蔘吳茱萸湯,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豬苓車前子湯, 十二味地黃湯, 獨活地黃湯, 荊防地黃湯, 石菖蒲遠志散, 瓜蒂散.

(2) 因襲性能處方名(24方)

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補中益氣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赤白何烏寬中湯, 官桂附子理中湯,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中湯, 芎歸蔥蘇理中湯,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 涼膈散火湯, 朱砂益元散, 葛根解肌湯, 麻黃定喘湯, 麻黃定痛湯, 葛根承氣湯, 拱辰黑元丹, 牛黃清心丸, 清心連子湯.

3. 獨創類

(1) 獨創藥名處方名(15方)

桂枝半夏生薑湯, 蒜蜜湯, 鷄蔘膏, 巴豆丹, 人蔘陳皮湯, 滑石苦參湯, 忍冬藤地骨皮湯, 熟地黃苦參

* 연변위생협회 사상의학 종합문진부

湯, 皂角大黃湯, 葛根浮萍湯, 乾栗蟻蟻湯, 乾栗楞根皮湯, 熊膽散, 麝香散, 麥門冬遠志散.

(2) 獨創性能處方名(14方)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麻黃定痛湯, 麻黃發表湯, 調理肺元湯, 補肺元湯, 鹿茸大補湯, 寒多熱少湯, 熱多寒少湯, 木通大安湯, 黃連清腸湯, 甘遂天一九, 五加皮壯脊湯, 瀰菴藤植腸湯.

注: 芎歸蔥蘇湯은 少陰人 24方 以內에 속하지 않는다.

以上の『東醫壽世保元』方名分類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본보기를 보아낼 수 있다.

우선 因襲처방에서

- 1) 母方을 토대로 하였다. 예하면 黃耆桂枝湯, 荊防地黃湯이다.
- 2) 될수 있는 한 母方을 四象醫理에 접근시키었다. 예하면 涼膈散火湯 같은것.
- 3) 原方名이 四象醫理에 맞는 것은 그대로 沿用하였다. 補中益氣湯 같은것.
- 4) 藥물구성을 변경 시키지 않은 藥명처방 方名은 그대로 沿用하였다. 石菖蒲遠志散 같은것.
- 5) 부득이한 경우에는 原方名도 썼다. 牛黃清心丸과 같은 경우.
- 6) 藥명처방명도 아니고 性能처방명도 아니면서 이름이 부당한 것은 고쳤다. 皂角大黃湯같은 경우.

다음으로 독창처방에서

1. 동象의 藥物로 조직되었다. 桂枝半夏生薑湯 같은것.
2. 君臣을 方名에 반영시키었다. 葛根浮萍湯 같은것.
3. 性能처방은 性能을 반영하고 四象醫理에 맞게 하였다. 太陰調胃湯 같은것.

4. 因襲處方名論

因襲處方은 古人의 處方名을 因襲하여 그대로 沿用하였거나 古人의 處方名을 토대로 演化한 것인데 因襲藥名處方名 15個中에서 石菖蒲遠志散과 瓜蒂散이 處方의 藥物內容과 이름이 모두 古人의 것 그대로 인용한적 외 나머지 13方은 모두 古人의 處方을 근거로 하여 他象약이 들어 있는 처방은 他象약을 贅材로 간주하여 빼 버리고 他象약이 들어있지 않은 처방은 적당히 가미하여 演化한 것들이다. 黃耆桂枝湯, 川芎桂枝湯은 그 이름이 張仲景의 桂枝湯에서 演化되었는데 黃耆桂枝湯이나 川芎桂枝湯은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 桂枝湯의 藥物의 性能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黃耆桂枝湯과 川芎桂枝湯은 모두 桂枝湯속속이란 뜻이기도 하다. 李濟馬氏가 桂枝湯에 黃耆白何首烏, 當歸를 가하여 다른 이름을 달지 않고 黃耆桂枝湯이라고 이름을 달고 桂枝湯에 川芎, 蒼朮, 陳皮를 가하여 다른 이름을 달지 않고 川芎桂枝湯이라고 이름을 단것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李濟馬氏가 새로운 의학체계를 창시 하던중 效험이 돌출하고 처방구조가 엄밀한 古人의 처방을 精選하여 부족점이 있으면 보충하면서 古人들이 창조해 놓은 유산을 최대한으로 계승하여 발양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아낼 수 있다. 因襲性能處方名中 古方名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24方名中 7方인데 補中益氣湯,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荊防敗毒散, 葛根解肌湯, 麻黃定喘湯, 牛黃清心丸이다. 그 외의 17 처방명은 전부 古人의 처방명으로부터 演化해온 것이다. 처방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少陰人의 補中益氣湯은 亡陽初證에서 胸膈에 陽氣를 상승시키는데 주로 쓰이고 脾胃之氣가 허약한 사람이 亡陽證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데도 쓰인다. 補中益氣湯의 <中>字는 中醫學에서 中焦脾胃를 대표한다. 四象의학에서는 中焦가 中上焦脾胃

와 中下焦肝小腸으로 되었다. 그러나 因襲性能 처방 명중의 〈中〉은 점부 脾胃만을 가리킨 것이므로 四象 의학의 도리에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脾胃가 어쩔던 中焦에 속하니 너무 나무랄 바는 못 된다. 四象醫學에서 氣는 脾黨에서 生하는 것이니 補中益氣란 이름이 대개 옳은 것이다. 升陽益氣湯과 升陽益氣附子湯은 補中益氣湯에서 演化되었다. 藿香正氣散은 表에 올체된 열을 발산하여 대장의 한기를 해체하므로써 腎陽을 脾胃의 陽氣에 연결 시키는데 쓰인다. 正氣는 氣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므로 四象의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香砂養胃湯도 散寒和解하여 腎陽을 脾膈에 上升시키니 胃를 養한다 하여도 錯誤가 아니다. 理中湯은 胃의 裏寒을 치료하므로 中焦를 調理한다는 의미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理中湯에서 官桂附子理中湯등 다섯 理中湯이 演化되었다. 寬中湯은 寒氣로 痞塞된 中焦를 열어준다는 의미이기에 옳다고 할 수 있다. 赤白何首烏寬中湯은 古方寬中湯에서 演化되었다. 이상의 因襲性能處方名 11方名은 少陰人處方名인데 처방명이 기본상 四象醫學義理에 부합된다. 이는 少陰人の 病證藥理를 古人들이 이미 〈盡乎昭詳發明〉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荊防敗毒散은 古方名 그대로이고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은 白虎湯에서 朱砂益元散은 益元散에서 演化된 것들인데 方名에 흠잡을 곳 없고 涼膈散火湯은 涼膈散에서 演化하였고 荊防導赤散은 導赤散에서 演化하였는데 導赤의 본뜻은 心小腸의 火(赤色)를 小便으로 導出한다는 뜻이어서 四象醫學에는 맞지 않지만 그대로 演化하였다. 荊防瀉白散은 그 뜻을 알 수 없다.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는 荊防瀉白散이라 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 도합 여섯번 記載가 모두 荊防瀉白散으로 되었으니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傳書之誤일 것이다. 古方濟生方に 瀉白散이 있지만 그 성능과 처방조성이 천양지차여서 그로부터 演化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有能之士가 해명

해주기 바란다. 이상 少陽人の 因襲性能 처방명 7個가 혹은 四象醫學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古人이 少陽人病證藥理를 〈庶幾乎昭詳發明〉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太陰人の 처방 拱辰黑元丹은 古方黑之丹에서 演化되었고 麻黃定喘湯名은 古方 그대로이며 모두 四象醫學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葛根承氣湯은 調胃承氣湯에서 演化되었는데 氣는 脾黨의 產物이니 肺를 치료하는 것과 상관되지 않는다. 葛根解肌湯은 原方名 그대로인데 肌역시 脾黨이어서 肺를 치료하는 것과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 두 처방명은 中醫學에는 부합되지만 四象醫學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牛黃清心丸은 原方名을 그대로 沿用한 것이고 清心連子湯은 牛黃清心丸에서 演化되었다. 心은 〈一身之主〉로써 어느 象에도 偏하지 않는 것이니 이 두 처방명도 중의학에서는 부합되지만 四象醫學處方名으로는 부합된다 할수없다. 이는 古人이 太陰人病證藥理를 〈大半乎昭詳發明〉한 것과 관계된다. 총적으로 말하면 因襲性能處方名은 古人의 것을 그대로 因襲沿用하였거나 因襲演化한 것이어서 古人의 것을 살아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의 도리에 꼭 부합될수 없다.

5. 獨創方名論

因襲處方名과는 반대로 獨創處方名은 李濟馬先生의 뜻대로 四象醫學의 理論과 臨床실천을 토대로 하여 獨創한 것이기에 四象醫學處方名體系를 참답게 반영한 것이다.

獨創處方名은 獨創藥名處方과 獨創性能處方名으로 나뉘어졌는데 獨創藥名處方名은 藥名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同象의 藥名으로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이기에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없다. 다음 獨創性能處方名을 해설한다.

木通大安湯은 脾陰下降不足으로 생기는 浮腫證을

木通을 君으로 하여 치료하는 처방인데 百余貼씩 써도 안전하며 平安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고 黃連清腸湯은 陰이 不足한 少陽人이 外邪의 침입으로 하여 陰氣下降障礙가 생긴것을 해결함으로써 大腸을 清하는데 黃連이 君이란 뜻이다. 甘遂天一丸은 生成數〈天一生水 地六成之〉에서 天一生數를 取用하여 天一으로써 水를 대표하고 腎을 暗示하였다. 甘遂는 少陽人表寒病破水結之藥이므로 甘遂天一丸이라고 이름지어 甘遂의 水와 腎에 대한 작용을 개괄하였다.

麻黃定痛湯은 처방의 진통작용을 반영했고 麻黃發表湯은 太陰人이 胃脘이 虛薄하여 寒邪가 침입한 것을 表로 發散한다는 뜻이고 調理肺元湯과 補肺元湯은 病후 조리하거나 病의 발전을 예방하는데 쓰이는데 肺元和 上焦를 補한다는 뜻이고 鹿茸大補湯은 先天不足을 大補한다는 뜻이므로 이해하기 간단한 것들이다.

太陰調胃湯은 太陰人처방인데 太陰人處方名에서 調胃란 단어는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清湯 두곳에서 사용되었다. 이 처방의 이름이 朱肱活人書의 調胃湯(大黃, 黃芩, 桔梗, 葛根, 白朮, 芍藥, 赤茯苓, 甘草)과 張仲景의 調胃承氣湯(大黃, 芒硝, 甘草)에서 계발받아 起因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太陰調胃湯은 東醫壽世保元에서 무릇 일곱곳에서 볼 수 있는 바 110페이지 5행에 〈嘗治太陰人胃脘寒證癰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無汗 短氣 結咳矣 忽焉 又添出一證 泄瀉數十日不止 卽表寒之重證也 用太陰調胃湯加枳椇根皮一錢 日再腹 十日泄瀉止〉 110페이지 8행에 〈此人, 又染癰病癰證, 粥食無味 全不入口 仍以太陰調胃湯加升麻 黃芩各一錢…… 疫氣大減而病解 又用太陰調胃湯加升麻 黃芩……〉 113페이지 6행에 〈體熱 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加升麻 黃芩〉 116페이지 7행에 〈太陰人證 有食後痞滿 腿脚無力病 宜用拱辰黑元丹 鹿茸大

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116페이지9행에 〈太陰人病 有咳嗽病 宜太陰調胃湯……〉 이상으로 부터 볼 수 있는바 太陰調胃湯은 胃脘寒證과 胃脘虛證을 치료하는 약이다. 太陰人은 臟局이 肝太肺小하여 胃脘의 溫氣가 부족하고 小腸의 冷氣가 相對的으로 有餘하여 항상 胃脘이 虛薄하므로 병집이 胃脘에 있다. 그러므로 太陰調胃湯이나 調胃升清湯이 胃脘을 補하고 調整하여 주는 것은 명백한 도리이다. 때문에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清湯은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清湯의 省略으로 보아야 지당하다. 이 두 처방명은 四象醫學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처방명이다. 만약 이 두 處方이 胃에 작용하는 처방이라고 생각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寒多熱少湯은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的 寒厥이 寒多熱少로 표현되는 증을 치료한다하여 지어준 이름이다. 寒多熱少湯은 『東醫壽世保元』 110페이지 10행 한곳에서만 볼 수 있는데 <論曰：太陰人病 寒厥四日而無汗者 重症也：寒厥而無汗者 險證也 常用熊膽散 或寒多熱少湯加蟪蟪5, 7, 9個. 大便滑者 必用乾栗 意苡仁等屬：大便燥者 必用葛根 大黃等屬……〉 이라 하였다.

이상에서는 오직 寒多熱少湯加蟪蟪5, 7, 9個라던가 大便滑者必用乾栗, 意苡仁等屬이라던가 大便燥者必用葛根 大黃等屬이라 하였을 뿐 따로 처방명을 달지 않았다. 따로 이름을 달면 名이 寒多熱少證을 치료하는 實을 떠날 수 있어 名實이 달라질까 염려되어서 었을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어떤 後濁들은 寒多熱少湯에 蟪蟪5, 7, 9個를 加하였다하여 蟪蟪敗毒散이라 名을 달고 意苡仁, 乾栗을 빼고 葛根, 大黃을 加하였다 하여 潤肺清肝湯이라 이름을 정하여 寒多熱少湯의 實은 있으나 面目이 없게 하였다. 熱多寒少湯은 太陰人肝熱裏熱證을 치료하는데 寒多熱少湯에 相對하여 熱多寒少湯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113페이지 8행에 <嘗治太陰人肝熱熱證癰病 有一太陰人素病 數年來 眼病時作時止矣 此親

得瘧病 自始發日用熱多寒少湯…… 病解後復用熱多寒少湯 大便燥澀即加大黃一錢 滑泄太多則去大黃……》 114페이지 9행에 《以熱多寒少湯 用藥本二錢 加大黃一錢……》 115페이지 2행에 《燥熱病 引飲小便多 大便秘者 用熱多寒少湯加藥本二錢 大黃一錢……此人更病 以熱多寒少湯加藥本大黃……》 117페이지 7행에 《太陰人病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 虛勞重證也. 大便秘一日則宜用熱多寒少湯加大黃一錢 大便每日不秘者 加龍骨減大黃……》 이렇게 『東醫壽世保元』에서 熱多寒少湯이 七處에 기재되고 大黃이거나 大黃, 藥本 혹은 龍骨이 加味되었어도 熱多寒少湯에다 加한다 하였을뿐 處方名을 따로 달지 않았다. 이 역시 寒多熱少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名과 實이 달리 될까 염려하여서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後世들은 熱多寒少湯에 大黃을 加하여 淸肺瀉肝湯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龍骨을 加하여 定神瀉肝湯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여 熱多寒少湯이 누런 구두를 더 신고 淸肺瀉肝湯으로 되고 흰 구두를 더신고 定神瀉肝湯이 된 격이니 實은 熱多寒少湯이 옳으나 名은 熱多寒少湯이 아니다. 또 寒多熱少湯의 病證원인을 보면 108페이지에 《胃脘衰弱而表局虛薄 不勝寒而外被塞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 爻象正是凜凜之勢也……》라 하였으니 太陰調胃湯과 그 적응증이 비슷하다. 처방구성을 보아도 太陰調胃湯에서 石菖蒲, 五味子を 빼고 杏仁, 黃芩을 加한 것이 寒多熱少湯이니 太陰調胃湯은 偏補偏溫이고 寒多熱少湯은 偏散偏淸일뿐 胃脘을 補益하고 寒邪를 去散하는 것은 그의 공동한 작용이다. 그리고 上證에 大便滑者는 必用乾栗, 意苡仁等屬이고 大便燥者는 葛根 大黃이라 하였으

나 寒多熱少湯名이외의 蟻蟻敗毒散, 閏肺淸肝湯등 名은 모두 당치 않은 것이다. 또한 熱多寒少湯主治를 보면 熱證瘧病 혹은 手指焦黑證, 或燥熱渴證, 或夢泄虛勞重證인데 大便秘하면 或加大黃 藥本, 或加大黃하고 夢泄에는 大便不秘하면 加龍骨하라 하였지 熱多寒少湯에 加大黃하면 淸肺瀉肝하고 加龍骨하면 定神瀉肝 하는 것이 아니다. 110페이지 6행에 《蓋肝熱肺燥……》 115페이지 11행에 《……肝熱太盛 肺燥太枯之故也》라고 熱多寒少湯證에 말한 곳이 있어 淸肺瀉肝이란 명목에 맞는 같지만 少陽人黃連猪肚丸(雄猪肚, 黃連, 小麥, 天花粉, 茯神, 麥門冬)條目 아래 말하기를 <分中 麥門冬一味 肺首也, 肺與腎上下貫通, 腎藥五味中 肺藥一味 雖爲贅材 亦自無妨>이라 하였고 六味丸條目하에 <此方中 山藥一味 肺藥也>와 太陽病 篇末에 <凡菜果之屬, 淸平疏淡之藥皆爲肝藥, 蛤屬示補肝> 이라고 한 것을 보면 少陰人藥은 모두 脾藥이고 太陰人藥은 모두 肺藥이고 少陽人藥은 모두 腎藥이고 太陽人藥은 모두 肝藥이므로 太陰人에 肺藥으로 瀉肝이란 말이 당치 않다고 본다. 또 太陽人篇에 <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 胃脘陽溫之氣太盛則胃脘血液乾槁 其勢必然也……>라고 한 것을 보면 胃脘血液이 乾槁하여 胃脘이 병을 얻지만 그 원인은 小腸吸氣液陰涼氣는 不足이니 治療는 小腸을 하여 瀉菴藤植腸湯 肝藥을 쓰는 것이다. 이로부터 보아도 太陰人에 瀉肝이요 潤肝이요 하는 것이 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太陰人處方名에 腎氣潤胃湯 歸腎一掃湯 따위들도 전부 사상의학 처방명 원칙과 위반되는 것들이다.